5개 마을 주민들 기업유치 성공 비결은

민원 해결·부지 매입서 묘지 이장까지

향우 등 인맥 활용 업체 찾아 대표 설득
전남 읍·면·동 286개 투자유치위 활동

낙후된 지역개발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각 자치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까지 큰 힘을 보태면서 전남도의 투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 자발적으로 기업체를 찾아다니고 토지매입까지 해주는 등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 기업 유치 어떻게 나서나=전남도 22개 시·군 295개 읍·면·동에는 총 286개의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돼 3천632명의 위원들이 활동중이다. 위원회는 마을 주민 중 이장단, 노인회장, 번영회장 등 지역 원로 10~20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

읍·면·동 투자유치위원회는 전남도가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한 1천 개 기업유치의 조기달성과 투자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들은 기업유치활동 중요사항 등을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부지매입 지원 및 각종 민원 해결 추진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출신 인맥 최대한 활용=영광군 묘량면 투자유치위원회는 (주)이우드코리아가 경기도 하남에 있는 공장을 전남 또는 강원지역으로 옮길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이근식 대표와 친분이 있는 재경 향우회원을 찾았고, 이를 통해 이 대표를 직접 주민들이 만나 설득할 수 있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 자재 생산업체인 창보쏠라모듈(주) 기업 유치를 통해 100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둔 담양군 대덕면 투자유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한 사례다. 위원회는 마을 주민과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가 공장 이전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직접 대표를 만나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부지 소개에서 토지매입까지=주민들의 투자유치 성공 열쇠는 공장부지 소개와 토지매입에 있었다. 기업이 공장부지를 물색할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값싼 토지이거나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토지를 찾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정서와 토지 소유주인 '이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부지매입 등에는 적격이다.

장성 동화면 주민들은 직접 기업에 공장부지를 알선하고 토지 소유주를 설득해 목재제조업체인 (주)다바크 공장을 유치했다.

곡성 삼기면 주민들도 전남도가 식품회사 '알밤공작소'와 투자협약을 한 뒤 땅을 공장부지로 파는데 부정적인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 매도 승낙을 받아냈다. 담양 대덕면의 경우는 공장 부지 내 묘지 이장 문제가 골칫거리였지만, 주민들이 나서 7기의 묘지 이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도 했다.

◇장성군 동화면 주민들의 친 기업 마인드=장성 동화면에는 기존 동화농공단지 외에 최근 8만7천평의 부지에 동화전자종업농공단지가 조성중이다. 20년 전 조성된 동화농공단지에는 현재 61개 업체가 조업중이며, 대부분 삼성전자 광주공장 협력업체인 전기·전자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많은 공장이 있지만, 소음과 공해가 없고 취직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장 유치를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화면 주민들은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다.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현재 조성중이지만, 단 한 차례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읍면동 기업유치위 투자유치 실적

영광 묘량	이우드 코리아 180억원, 고용 120명 공장 설립부지 14필지를 3일만에 계약완료
담양 대덕	창보 쏠라 모듈(주) 100억원, 고용 30명 사업부지내 묘지이장문제 신속해결
장성 동화	(주)다바크 15억원, 고용 25명 유치위에서 다바크방문 상담 및 공장부지 알선
곡성 삼기	알밤 공작소 218억원, 고용 154명 매도에 부정적인 공장 편입부지 소유자들을 설득, 매도 승락을 신속히 받아냄
장흥 부산	믿을기업(주) 30억원, 고용 30명 회사 수차례 방문 및 자매결연 체결

담양군 대덕면 지역 기업추진위원들이 19일 창보 쏠라 모듈(주)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공사진행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담양=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추경으로 일자리 60만개 창출" 예산 4조9천억원 책정

정부는 27조~29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직, 간접으로 총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공공근로 등 직접고용에 2조7천억을 투입, 55만2천명을 고용하고 수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여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로 4만~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게된다.

정부는 19일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대책 추경규모를 4조9천억원으로 책정, 이를 통해 총 148만2천명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옛 공공근로 성격인 희망근로를 비롯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2조6천881억원을 투입, 55만2천개를 만들고 일자리 나누기에 4천862억원을 배정해 22만1천개의 일자리가 지켜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훈련 분야에는 1천580억원을 지출, 32만7천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생계지원과 고용촉진 등에도 1조5천680억원을 편성해 38만2천명을 지원한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5만개는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며 이외에 전체 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를 분석해 보니 4만~7만개 정도가 나왔다"면서 "결국 이번 추경으로 얻어지는 일자리는 60만개 정도"라고 전망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크다.

또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5천명을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총 3천52억원을 들여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U대회 광주 실사단 3박 4일간 뭘 보나

19일 광주시 북구 일곡 근린공원에서 열린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기원 2015보 걷기대회' 참가자들이 대회 유치를 염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2개 체육시설 둘러보고
기념식수·대통령 면담도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유치를 신청한 광주시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현지실사에 대비해 종합준비단을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실사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실사단은 다음달 6일~9일까지 3박4일 동안 광주·전남 32개 체육시설을 둘러보고 3차례 프레젠테이션을 받는 등 광주의 대회 개최 역량을 평가한다.

광주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실사단의 일정에 맞춘 '2015 U대회 실사대비 종합준비 보고회'를 갖고 FISU 실사단 방문 준비를 총괄 지휘할 종합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최종만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준비 ▲의전지원 ▲언론대책 ▲환경지원 ▲교통지원 ▲체육지원 등 6개 지원반으로 구성됐으며 5개구청과 지역 대학, 경찰청, 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회도 운영된다.

각 지원반은 현지실사의 가장 핵심인 프리젠테이션 작성부터 환영 행사, 경기장 시설 안내, 도심 시가지 정비까지 모든 준비상황을 추진한다.

실사단은 케말타머(터키), 말룸베트라레트(남아공), 히사토 이가라시(일본), 루시아노 카브랄(브라질) 등 6명으로 구성돼 광주를 점검한다.

실사단은 4월6일 입국한 뒤 곧바로 광주시의 경기장과 숙박시설, 인프라 등 대회 개최 역량과 비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U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해 염주수영장을 거쳐 순천팔마경기장, 목포 국제축구 센터 등 광주·전남 32개 체육시설을 살펴본다. 시는 실사단을 위한 행사로 기념식수, 명예시민증 수여, 대통령 면담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시는 실사 마지막날인 9일(잠정) 대통령과 실사단의 면담이 이뤄진다면 U대회 유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의 유치열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실사단의 입·출국장인 광주공항에서의 환영·환송 행사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범시민지원단과 시민들은 환영·환송 행사에서 미리 준비한 실사단원 출신 국가의 국기 500여개와 실사단의 사진 피켓 등을 내세워 광주의 대회 유치 열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광주시는 올해 실사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하루 줄어들고 5명의 실사위원 가운데 4명이 이미 광주에서 실사를 벌인 경험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히 생략하고 경기장 등 시설 위주로 실사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보여준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바탕으로 광주와 접한 전남지역의 체육시설과 연계성, 편리한 교통망 등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U대회 최종 개최지는 5월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집행위원 총회에서 결정된다.

최종만 행정부시장은 "종합준비단을 실사 완료시점까지 가동해 각 부분별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